

# 낙농을 이 땅의 국민생존을 위한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조 흥 원

서울유유허동조합장, 본회부회장



오늘날 선진국은 농업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의 농업은 축산업이 주이고 그 근간은 낙농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낙농은 식량 공급원으로서 매우 주요한 산업으로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고영양가 식품으로 식생활의 전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정** 부의 새천년 위원회는 새천년의 비전과 목표를 “지난 1000년의 역사가 대립과 상쟁,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면 새천년은 평화와 상생과 행복의 새시대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할 비전이다. 또한 우리는 가치의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사회의 후손을 위한 공존과 상생, 창조의 시대로 새천년을 이끌어 가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천년에도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대결구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식량문제로 비롯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국내의 경제와 낙농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인간 생존의 부가가치는 땅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국민의 기초식량산업인 낙농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태양이 있는 한 풀이 있고 풀은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젓소)의 먹이가 될 것이며, 초식동물은 2차 소비자(육식동물), 3차 소비자(사람)의 연결 고리가 된다. 생태계의 폐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의 역할이 새 천년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선진국은 농업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의 농업은 축산업이 주이고 그 근간은 낙농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낙농은 식량 공급원으로서 매우 주요한 산업으로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고영양가 식품으로 식생활의 전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낙농에 있어서 초식동물인 젓소는 생태계의 주요 고리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사료자원을 이용하여 고영양가 식품인 우유와 고기를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농은 국토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적 산업이다. 낙농 생산기반인 초지와 사료작물의 재배지는 국토를 보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낙농업의 기반이 무너졌을 경우 이를 재조성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수 십년의 시간과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유제품의 국제 교역량은 세계 총생산의 7% 정도이다. 즉 평균 자급도는 93%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일정 수준의 낙농제품의 자급 없이 언

젠가는 국제교역상 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식량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낙농업의 전면적인 포기는 궁극적으로 농업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고, 식량산업의 식민지화를 자초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낙농업은 영구히 유지발전시켜야 할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로운 무역 질서에 따라 2000년대에 완전 개방되는 유제품 시장에 대비하여 낙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1〉을 보면 1985년에서 1998년까지 13년동안 낙농가수는 43,760호에서 15,971호로 약 2/3의 농가가 낙농에서 이탈

되었다. 반면 낙농가 호당 사육두수는 9두에서 34두로 약 4배 가량 증가 되었다. 국내 젖소 사육두수는 55만두 수준에서 1993년 이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낙농가수의 급격한 감소, 호당 사육두수의 증가는 열악한 노동환경, 후계자의 부재, 환경문제 및 도시화로 인한 낙농지대의 제한 등 국내적인 문제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입 개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로 볼 때 이제 개방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세계화에 능동적인 대처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규모화는 계속되어 2004년경에는 많은 수의 낙농가가 탈락될 전망이다이며 낙농가 호당 평균 58두를 사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0두 이상의 전업 낙농가도 4,000~

5,000호에 이를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업낙농가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이러한 전업낙농의 경영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전업목장은 부부노동으로 70두(경산우 40두)를 사육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천년에는 생존의 또 다른 축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낙농생산 기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젖소의 개량에 있어서는 수정란 이식이나 핵이식기법 등 첨단 개량기법의 활용을 통한 개량의 속도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개량을 검증하고 사양관리를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한 검정사업에 새천년에는 낙농가의 60%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사육하고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양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즉 사료의 확보에 있어서는 자급조사료로 옥수수를 재배하여 연중 사일리지의 급여 시스템이 주를 이루게 되고 구입 조사료는 양질의 건초가 주로 이용될 것이다.

사료급여는 이렇게 확보된 사일리지와 건초를 이용하여 TMR 사양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TMR사양은 우사시설을 후리스틀이나 무우상 우사로 착유시설을 밀킹팔라나 텐덤식착유시설로 전환시킬 것이다.

〈표 1〉 연도별 낙농가수 및 사육두수

년 도	1985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낙 농 가 수(호)	43,760	28,219	25,667	23,519	21,129	17,419	15,671
사 육 두 수(두)	390,135	553,343	552,139	553,467	551,493	544,417	538,913
호당사육두수(두)	8.9	19.6	21.5	23.5	26.1	31.3	34.4

〈표 2〉 전업목장의 경영 모델

- 노 동 : 부부 2인, 헬퍼 또는 시간제 노동 활용
- 조 수 입 : 186,000,000원 (1999년 경상가격 기준)
- 산 유 량 : 8,000kg/두
- 세 균 수 : 1만이하/ml
- 체 세 포 수 : 20만/ml
- 사 육 두 수 : 70두
- 경산우두수 : 40두
- 사 료 급 여 : TMR사양 시스템
- 기 계 화 : 밀킹팔라, 자동사료급여기, 분뇨처리시설 등



세계무역질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그린라운드와 국내의 환경에 대한 요구로 낙농 또한 환경친화적 낙농을 구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밖에 될 수 없는 식품 및 농산 부산물의 대부분을 젓소가 사료로 이용하므로 낙농의 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새천년에는 앞서 말한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뇨의 액비화, 고액분리, 유기질비료화를 통한 땅으로의 환원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발 더 나아가 축산분뇨의 냄새에 대한 규제에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유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목장의 원유 위생

에 품질관리 기법이 도입되어 목장HACCP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원유의 위생 등급은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분유질에 있어서는 유지방 보다 유단백질, 무지고형분을 고려하는 우유가 격 체계가 도입될 것이다.

새천년에는 낙농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가 정착되고 낙농가는 우유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집유는 현재 15개의 집유조합에서 권역별(경기, 강원, 충남, 경북, 영남, 호남)로 통합되고 결국 전국 1~2개 집유조합으로 통합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 시유 생산은 조합이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하여 헬퍼의 적극적 활용, 시간제 착유 등의 제도의 도입으로 낙농가의 여가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낙농관련 단체(낙농조합, 협

회, 진흥회 등)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로 낙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의 낙농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므로서 낙농가는 이들 단체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낙농가들이 위생적으로 완벽하며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므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낙농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낙농가는 낙농과 그 협동조직 모두를 후대낙농가로부터 빌려쓴다는 마음 자세로 새천년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낙농가는 새천년을 후대낙농가를 위한 공존과 상생, 창조의 시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하여 낙농을 이 땅의 국민 생존을 위한 산업으로 확고히 하는 시대를 낙농가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

(필자연락처 : 02-433-8151)

